

‘장마·태풍’ 7명 사상·재산피해 340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일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태국어 비의 신)’이 동해 먼 바다로 빠져나감에 따라 호우·태풍 피해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10시 ‘호우·태풍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 수습을 위해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장마와 이번 태풍으로 최고 506mm(전북 군산)의 강수량과 최대풍속 초속 31.4m(전남 여수·사속 113km)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장맛비와 태풍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1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중이

정부, 중앙재난본부 비상근무 해제 응급복구 체계 전환 조기 복구 추진

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영광에서 모내기를 하던 53세 태국 여성이 낙뢰를 맞았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9시18분께 사망했다.

같은달 28일 광주 광산구에서 실종됐던 74세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오후 경북 봉화군 국도 31호선 고선터널 앞에서 화물차 낙석사고가 발생해 61세 남성 1명이 숨졌다.

지난 1일 오전 8시에 전남 보성에서 73세 여성이 흘러내린 토사로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오후 3시에 전남

여수의 한 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이 떨어져 2명(중상 1명·경상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일 오후 5시15분께 광주 광주에서 하교하던 14세 남학생이 끈지 앞편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재민은 30세대 63명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파손 5건, 주택·상가 등 침수 79건, 비닐하우스 침수 166건, 석대·축대 5건 등 255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85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도로 16건, 저수지 1건, 하천 41건, 철도·교량 5건, 학교 1건, 항만 2건 등이었다.

정부는 태풍이 우리나라 해역을 완전히 벗어난 낮 1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해제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상시 비상상황관리체계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지방약화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붕괴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에 집중한다.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은 신속히 복구를 추진하고 가옥,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추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단지 부착 시비’ 관리소장 때린 5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전단지 부착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파트 관리소장 장을 때린 혐의(폭행)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36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관리소장 B(52)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모 업체 사장인 A씨는 여름철 방충망 설치 홍보 전단지를 붙이는 과정에 B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승강기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행택 기자

순천 건널목서 기관차·승용차 충돌

4일 오후 1시6분께 순천시 조곡동 순천교 인근 건널목에서 벌교역에서 출발해 순천역으로 향하던 기관차와 정묘(77)씨의 준중형 승용차가 충돌했다.

충돌 직전 정 씨는 차량에서 빠져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관차량은 다른 차량과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기관차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차단기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성인오락실서 금품 훔친 공기업 직원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성인오락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 공기업 직원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한 성인오락실에 들어가 공구로 계산대에 놓인 금고를 부수고 643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에 빠진 A씨는 빚을 탕감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오락실을 자주 찾은 A씨는 사장이 특정 장소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뒤 공구를 들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경찰에 “도박에 빠져 빚을 많이 졌다. 순간적인 욕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업체와 오락실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두고 달아난 것을 확인, 추적 끝에 검거했다.

광주서 백골 상태 두개골 발견...경찰 수사

광주 한 공원 안 숲에서 백골 상태의 두개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께 광주 광산구 모 공원 내 대나무 숲에서 주민이 두개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은 경찰에 “이름 전 숲에서 죽순을 캐던 중 뼈를 봤다. 당시 동물뼈로 생각했으나 이날 다시 와서 확인해보니 두개골로 보여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개골 일부에 흙이 들어 있었고, 성별이나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두개골이 발견된 공원 주변은 과거 공동묘지였으며, 행정당국이 5년 전 공원에 발생한 화재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행택 기자

전주서 건물 방수작업 중 작업자 3명 질식

4일 오후 1시59분께 전북 전주시 송전동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해당 건물 지하에서 아스팔트 폼타르 벽면 방수 작업을 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작업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작업자 중 2명은 의식이 있어 스스로 지하에서 탈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 신원 파악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장마로 떠밀려온 부유물 청소

전북 전주시 원신구 용남동 전주천서로와 전주천동로 사이의 전주천 일대가 연일 지속된 장마로 인해 쓸려내려온 부유물을 전주시 관계자들이 정리하며 한옥마을 일대의 미관을 가꾸고 있다.

대학총장 서갑원,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후보등록 ‘논란’

경기도 한 대학총장으로 선임된 서갑원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한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말썽이다. 서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돼, 취임식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서 전 의원이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6월29일 마감된 순천지역위원장 후보에 서갑원 전 의원, 김광진 전 국회의원, 김영덕 순천대 겸임교수, 민주당 남북교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 민주당 부대변인 등 3명이 등록했다는 것. 이번에 선출된 지역위원장은 임

기 2년(2020년까지)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분석된다.

이렇게 다가올 총선까지 주요 보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서 전 의원의 인위적인 생각이 끝없는 욕심을 넘어 순천지역 정치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장전동 54)는 “서 전 의원이 욕심을 너무 부린 것 같이 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대학교 총장을 역임 하면서 전남 순천을 관리하겠다는 망상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러한 서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사동 52)는 “서 전 의원 등 매 선거철만 되면

자신이 순천발전에 적임자라며 포(선거)를 구걸하는 구시대적 정치인들은 이제 그만 마음을 비우고 본인의 미래 발전에만 노력하기 바란다”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이어 B씨는 “집권 여당의 지역위원장은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계파도 없고 지역분열, 갈등 유발자가 아닌 갈등 해결자로 새롭게 자리매김 해야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을 리더할 수 있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부딪치면서 소통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급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